

대행 스님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십시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께서는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그저 절에 나가서 기도나 하고, 그저 다녀가면 되려니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세세생생에 끄달리지 않는 자유인이 되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스님들이 여러분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스님들 마음이 여러분 마음하고 결부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나는 여기 왔다만 가도 되고 또 왔다만 가도 스님들은 다 아실 거다. 또 일체제불께서 다 통신이 되시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통신처가 돼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마음이 왔다 갔다는 걸 아는 까닭에 일체가 다 아는 것입니다. 아셨죠? 우리가 스님들 고깃덩어리만 보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몸도 자기의 몸이 아닌 까닭에 소중히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하구요.

오늘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앞으로 물리가 터지는데도 그렇고 또 공부하는 데 길을 어떻게 가야만 옳으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방치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깐 때에 따라서 오늘 같은 날은 질문으로 우리 서로 토론을 합시다.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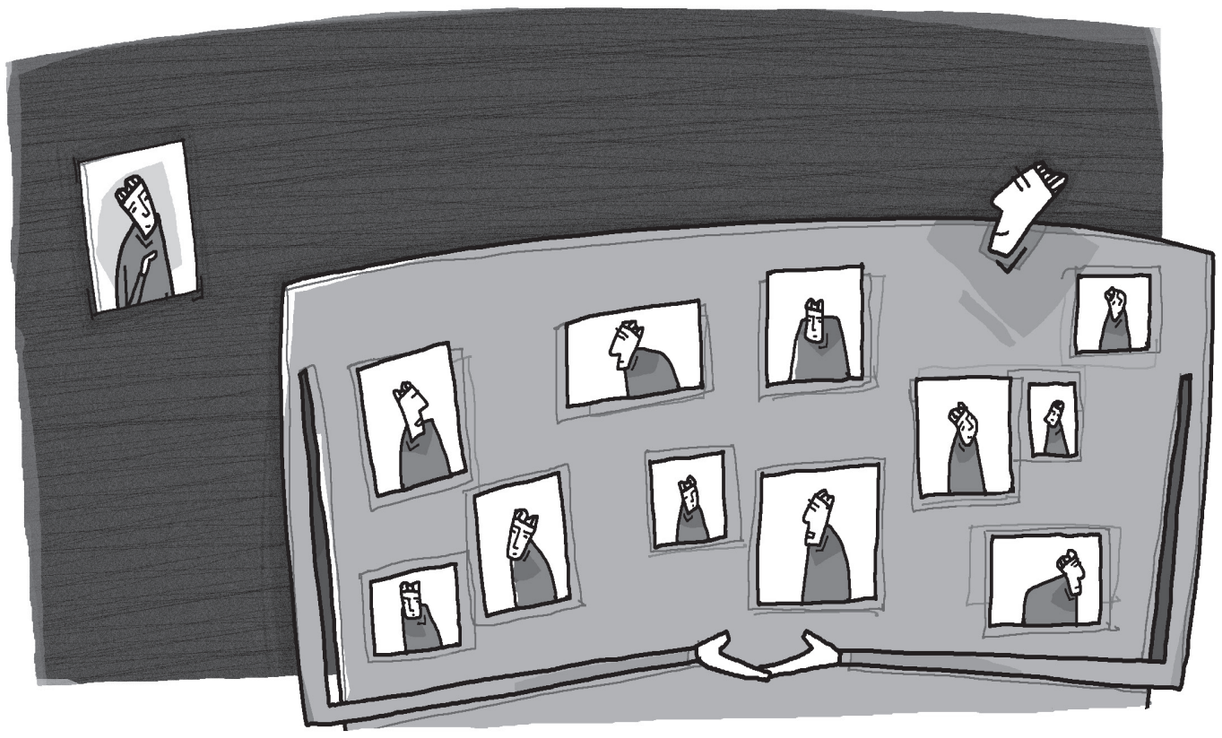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질문자1(남) 제가 얼마 전에 육만 원짜리 벌금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돌려놓으려고 그래도 안 되고 그래서 막 화를 내고 그랬는데 그 건이 있은 후에 또 그보다 더 크게 십만 원짜리가 생겼어요. 그런데 또 그렇게 안 돌려놔지고 그래서 또 화를 내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삼십만 원짜리 건이 또 터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게 억울하고 그래서 싸우고 그랬는데 그다음에는 사십오만 원짜리가 터지면서 화재가 나는 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다시 생각을 해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번연히 알면서 이렇게 안 돌려놔지고 화를 내고 그랬을까?' 하면서 다시 반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정리하고 또 그렇게 한 사람들까지도 '아, 나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돼서 참 고맙다.' 하고 다 돌려놓으니까 돈은 내게 되었는데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질문 내용은 안팎의 경계에 대해서 매일매일을 무심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그냥 응하고 그냥 먹고 마시고 그렇게 그냥 그냥 산다면 그거보다 더 큰 향상의 도리가 있는지 그것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큰스님 우리가 못났든 잘났든 자기가 이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자기로부터 상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내면세계에서 당신을 이끌어 가는 데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것이 채찍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돈이 걸렸더라도 그냥 무심으로 돌리라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믿으니까, '이것도 주인공 네가 한 거지.' 하면서 상대방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주인공으로 인해서 댁의 심부름을 하게 됐으니까 오히려 고맙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고마운 겁니다. 사실이 그렇구요, 또.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삼십만 원이고 사십오만 원이고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렇게 상대방을 원망하면서 대립이 되니까 알라고 거기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날 거를 두 번 세 번까지 가게끔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이 무너질 이치가 내 앞에 닥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믿고 주장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허허 웃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웃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건 왜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다면, 아니 믿지 않는 거는 아닌데 믿지 않는 걸로 돼 있는 분들이 많죠. 주인공을 부르면서도 입으로만 불렀지, 진짜 자기 뿌리를 믿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도 주인공을 찾았는데 왜 그렇게 나는 안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그것은 벌써 바깥으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누구한테 물어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자기 양심을 보고 그 일이 안되는 걸 생각한다면 틀림없는 걸요, 뭐.

그러니까 오래 다니고 오래 안 다니고 간에 처음 왔어도 한번 일러 준 거를 명심하고 오직 그렇게 쥐고 가는 사람, 즉, 급박한 사람, 이런 분들은 좀 쉬운 거 같아요. 우리가 병만 낫자고 이거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잘되자고만 또 이렇게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왔다 하면 종자가 뿌리가 되고 뿌리가 바로 자기 싹을 현실로 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싹은 보호받는 데가 어디냐 하면 뿌리로써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형상, 이름을 믿지 마라. 그것은 도깨비장난과 같으니라. 그러니 너의 내면의, 너의 선장을 진짜로 믿어라. 너를 이끌어 가는 선장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내면 공부 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공이 색이고 색이 공이라 한 뜻도 가만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형편을 보면 그게 다 나와요. 보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듣는 것도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걸어도 뒷발자국이 바람과 같이 사라지고, 그냥 모두 일거수일투족이 다 바람같이 사라지고, 내가 그냥 볼 뿐이고 들을 뿐이고, 갈 뿐이고 디딜 뿐이고 움죽거릴 뿐이지 앞뒤가 없어요. 떼어 놓는 대로 바람같이 사라지니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가운데 어떤 놈이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 가운데, 바람같이 사라지는 공한 그 가운데 어떤 놈이 지금 현실에 걷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움죽거리고 있느냐, 보고 있느냐, 듣고 있느냐, 어떤 놈이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놈 속에, 또 외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놈 속에 선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몸이 움죽거리고 보게 되고 듣게 되고, 상대를 알게 하고 이렇게 한다. 그것을 잘 알아서 좀 실천으로 나가게끔 하십시오.

질문자1(남)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원에 나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뭐, 몸이 아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나오게 되는데 좀 오래 다니신 분들도 물어보니까 법회에 안 나오면 좀 어딘가 서운하고 그래서 나오는 분도 있고, 또 나오면 좋으니까 또 이익이 되니깐 나온다는 분도 계시고 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어느 만큼 공부가 돼서, 또 뭐, 귀신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다니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땐 법회에 나오는 것은 자기를 더 되돌아보고 근본을 믿도록 자기를 다지기 위해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 20면으로 계속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